

살아날 기미 없는 광주 경제

광공업 생산·출하·재고지수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생산활동 위축에 소비 감소...건설 수주도 '뚝' 떨어져

광주지역 생산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3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출하·재고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했다. 건설수주도 뚝 떨어졌다. 현재 경제형편은 좋지 않고 앞으로 경기·취업기회 전망도 비관적이다.

호남지방통계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광주·전남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3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94.0(계절조정)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했다.

기계장비(19.5%)·의료정밀광학(124.8%) 등은 생산이 늘었지만, 주력 품목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27.9%)·고무 및 플라스틱(-9.1%)·자동차(-4.0%) 등의 생산이 줄면서 생산지수를 떨어뜨렸다.

출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했다. 특히 출하지수는 울며 3개월 연속(100.0→95.5→90.1) 감소세다. 품목별로 자동차(-7.6)·전자부품(-31.3%)·고무 및 플라스틱(-10.2%)의 출하가 크게 줄어들면서 재고(자동차 25.2%)를 늘렸다.

생산활동이 움츠러들면서 소비도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8%,

대형마트는 0.4% 줄었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신학기 특수로 가전제품(35.8%)과 신발·가방(39.2%) 등의 소비는 늘었지만, 오락·취미·경기용품(-21.1%), 음식료품(-9.7%), 의복(-4.4%) 등 새봄맞이 상품 소비가 줄었다.

문제는 당분간 지역 경기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내놓은 '2019년 4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각종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이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평균치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인 소비자가 많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인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전체 소비자심리지수는 양호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생활형편·경기판단·취업기회 전망 등이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4로 기준치에 못미치고, 생활형편전망(99→99→98)·가계수입전망(102→99→98)은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소비지출전망은 111로 돈 쓸 곳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류(99)·여행(97)에 의한 지출이 아니라 교육(101)·주거(101)비에 들어갈 돈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판단은 훨씬 비관적이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79에 그쳤고, 향후경기전망(87)과 취업기회전망(91)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03.59 (-12.84)
- ↓ 금리(국고채 3년) 1.70 (-0.01)
- ↑ 코스닥 754.74 (+4.14)
- ↑ 환율(USD) 1168.20 (+9.70)



광주은행,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 복지시설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29일 오전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567매(2000만원 상당)를 구매해 광주시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세계인의 축제인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민과 국내외 관람객이 하나 되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체육 진흥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 받는 광주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후원은행으로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며 대내외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25일 1억원의 입장권을 구매 한바 있으며, 광주은행 전 지점 객장에 '수리달이' 인형을 전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수리&달이'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에는 관람객을 위한 외화 환전 부스와 이동점포를 운영해 광주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3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전남건설협회장에 공후식 동림종합건설 대표

건설협회 전남도회 제22대 회장으로 공후식(사진) 동림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3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어 대표회원 만장일치로 공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감사에는 노영삼 대한건설 대표이사가 뽑혔다.

취임식은 오는 6월26일 열리며, 임기는 4년 단임이다.

1976년 건설업에 첫발을 내디딘 공 당선인은 현장 경험과 정도 경영을 원칙으로 40여 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남도회 윤리위원·감사를 역임했으며, 건설공제



조합 대의원·전남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강진 출신인 그는 광주상고와 광주대학교를 졸업했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 당선인은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 힘써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4년간 건설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기업 내수부진·인건비 상승 힘들어

자금사정·채산성 BSI 기준치 훨씬 밑돌아

한은 4월 기업경기 조사

광주·전남 기업의 자금사정과 채산성이 다소 악화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지난 30일 발표한 '2019년 4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연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 연합 BSI는 69로 전월과 같았다.

제조업 5월 연합전망 BSI는 69로 지난달 전망대비 1포인트 하락해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매출전망 BSI도 72로 기준치를 훨씬 밑돌며 지난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비제조업 5월 연합전망 BSI는 77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하지만, 매출전망 BSI는 85로 지난달 전망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 기업경기실사지수 자금사정과 채산성 부문은 전월 전망치 보다 낮게 나와 딱딱해진 경기를 실감케 했다.

제조업 자금사정은 4월 77로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돌았고 전월 조사된 전망치

보다 1포인트 낮았다. 채산성 BSI 역시 전월 보다 6포인트 하락한 80을 보였다. 비제조업 역시 자금사정 BSI가 77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채산성은 4포인트 낮은 80을 기록했다. 특히 비제조업 인력사정 BSI는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2를 기록해 인력난 현상을 뚜렷이 드러냈다.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19.0%)이 가장 컸고,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3.1%), 경쟁 심화(13.1%), 불확실한 경제 상황(11.4%), 원자재가격 상승(11.2%)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25.0%), 내수부진(18.9%), 경쟁 심화(17.1%), 불확실한 경제 상황(11.2%) 순으로 꼽혔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우산 행복주택 'LH 희망상가' 입점자 모집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광주우산 행복주택(361가구) 단지 내 'LH 희망상가' 입점자를 모집한다.

LH 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과 동지 내 물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소상공인, 실수요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게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공공 임대 상가다.

광주우산 행복주택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으며, 입주하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모집은 총 20호(일반형 7호·공공지원형 13호, 전용면적 28~68㎡)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상복합상가다.

일반형은 오는 20일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를 통해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형의 경우 자격 제한 없이 경쟁입찰 최고 가낙찰 방식으로 낙찰금액의 24분의 1을 매월 임대료로 납부하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공공지원형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기업·영세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 50~8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되고, 2년 단위 임대차계약으로 최장 6년간 임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입점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근로·자녀 장려금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대상 543만 가구로 급증...근로장려금 대상 113% ↑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지난해 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월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연환뉴스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라·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과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